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카타르

State of Qatar

2020년5월6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2천 km ² 	인구 2.8백만명 (2019 기준)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GDP 1,857억 달러 (2019 기준) 	1인당GDP 65,582 달러 (2019 기준) 	통화단위 Qatar Riyal 	환율(U\$기준) 3.64 (고정환율제) 

-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위치한 인구 2.8백만 명, 면적 12천 km²(한반도 면적의 5%)에 불과한 소국이나,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자 2018년 1인당 GNI 기준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자원·경제 부국임.
- 2017년 6월 카타르 정부의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 옹호를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고 식료품 및 산업 기자재 등의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카타르 경제는 위기를 겪었으나, 수입선 다변화와 자국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함.
- 카타르는 세습군주제로 2013년 6월 즉위한 젊은 군주(80년생) '타미 빈 하마드 알 타니'의 통치 하에 있으며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으로 인해 카타르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임.
- 중립·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과는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 51조 m³ 규모의 세계 최대 가스전을 공유(카타르 및 이란 영해에 걸쳐 위치)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4. 18. 수교 (북한과는 1993. 1. 11. 수교)

주요협정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84), 문화협력협정('88), 투자증진·보호협정('99), 항공협정('09), 이 중과세방지협약('09), 군사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435,462	525,978	357,290	선박, 자동차, 냉난방기
수입	11,267,090	16,293,627	13,036,553	원유, 천연가스, 석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말 누계, 총투자 기준) 92건, 74,559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3.7	2.1	1.6	1.5	1.4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7	0.4	0.3	-0.7
재정수지/GDP	-0.7	-9.2	-6.6	2.2	1.7

자료: IMF, EIU

LNG 및 원유 가격 부진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4% 기록

- 카타르는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및 LNG의 국제가격 상승과 함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2011년까지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생산량 정체 및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4% 수준까지 하락함.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LNG 수요가 더욱 급감하여 마이너스 경제성장(-1.5%)이 전망되는 상황임.
- 카타르산 LNG의 수입국은 주로 아시아(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및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국가들이 다수 포함됨.

원자재 수출 가격 하락 및 경제활동 둔화로 디플레이션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수출 가격 하락 및 경제활동 둔화로 약세를 이어오다 2019년에는 -0.7%의 디플레이션이 발생됨.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을 중심으로 원유 및 LNG 수요가 급감하여 원자재 국제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약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2022년에는 월드컵 개최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흑자 기록

- 카타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이어오던 중 배럴당 평균 10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가 2016년 45달러 및 2017년 55달러로 급락하면서 10여 년 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이후 국제유가가 2018년 71달러 및 2019년 64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고 카타르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인원 감축, 예산 축소 등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흑자를 회복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2022 월드컵 개최 준비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에 재정수지가 2019년보다 열위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13,751	-8,270	6,426	16,652	4,229
경상수지/GDP	8.5	-5.5	3.9	8.7	2.3
상 품 수 지	48,798	25,375	36,733	50,981	41,581
상 품 수 출	77,294	57,309	67,498	84,288	72,935
상 품 수 입	28,496	31,934	30,766	33,307	31,354
외 환 보 유 액	35,990	30,169	13,176	28,538	37,066
총 외 채	121,559	192,990	166,258	194,478	206,485
총외채잔액/GDP	75.2	127.2	99.6	101.6	111.2
D.S.R.	8.1	11.1	10.0	9.4	10.4

자료: IMF, EIU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록

- 2018년 중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755억 m³ 로 세계 5위 수준이나, 동 기간 중 천연가스 소비량은 419억 m³ 에 불과하여 천연가스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상품수지의 대규모 흑자(2019년 GDP의 22.4% 추정)에 기반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9년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총수출성장률은 마이너스 기록, 경상수지는 위축

- 세계은행이 2010년 가격을 기준치(100)로 작성한 천연가스 가격지수는 2016년 56.95까지 폭락한 이후 2018년 82.06까지 회복되었으나 2019년 다시 61.15로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임.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으로 2019년 총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2018년 17.9% → 2019년 -8.7%),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크게 위축됨(2018년 8.7% → 2019년 2.3%).

천연가스 가격지수



자료 : 세계은행

구조적취약성

석유화학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취약한 경제구조

- 2017년 기준 석유화학 부문이 GDP의 33%, 재정수입의 83% 수출의 84%를 차지하는 등 석유화학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200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국제유가가 2014년 98.97달러에서 2016년 45.1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16년에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한 바 있음.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인원 감축, 예산 축소 등 정책 단행을 통해 재정수지는 2018년, 경상수지는 2017년에 각각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국제유가 약세에 적절히 대응한 바 있음.

성장잠재력

LNG 증산 및 2022 FIFA 월드컵 관련 인프라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 성장잠재력 양호한 편

- 2020년 하반기부터 LNG 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위한 8개 경기장(stadium)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장기 성장잠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로 LNG 수요가 급감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사업 수익성에 타격이 우려됨.

* 대표 LNG 가격 지표인 헨리 허브(henry hub) 기준 1 MBTU(Million British Thermal Unit, 천연가스 계량단위)당 2018년 말 4달러대에서 2019년 말 2달러대로 하락한 이후 2020년 4월 현재 1달러대로 더욱 열위해진 상황임.

정책성과

인근 아랍 국가들의 단교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이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카타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자, 카타르는 해당 국가들로부터 식료품 및 산업 기자재 수입이 중단되며 경제 위기를 겪음.
- 그러나, 카타르 정부는 단교국들의 국교 복원을 위한 선결조건(이란과의 절연, 터키와의 군사협력 중단,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등) 수용을 거부하고 미국, 중국, 터키, 오만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자국 상업항을 통한 직수입 확대, 국내 식량 생산 확대를 통한 식품의 수입의존도 축소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성과

2022 FIFA 월드컵 유치 및 LNG 가스전 개발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

- 2022년 FIFA 월드컵 유치로 인해 월드컵 개최 전에는 경기장, 호텔, 도로 및 지하철, 공항 건설 등 건설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개최 이후에는 관광 및 항공 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기대됨.
- 카타르 정부는 현재 77백만 톤 수준의 LNG 생산능력을 2027년에는 126백만 톤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 북부 가스전(North Field) 개발을 추진 중(2024년 완공 및 생산 개시 예정)이며, 동 계획의 완수는 향후 카타르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다각화 노력

-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투자법 개정(2019년 1월 시행)을 통해 외국인 지분 100% 투자가 가능한 산업 부문에 대한 제한을 없앴. 또한, 외국인 영주권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걸프 지역 최초로 외국인 앞 영주권을 허용함(법 제정 전 외국인은 '거주 허가' 발급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만 거주 가능하였음).

정치동향

Tamim 왕의 통치 하에 정치적 안정 유지

- 카타르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2013년 6월 즉위한 젊은 군주(80년생) '타미 빈 하마드 알 타니' 왕의 통치 하에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의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는 이상 정치적 불만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함.
 - 카타르는 2003년 영구헌법 도입 및 3권 분립원칙을 적용하여 국왕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별도의 입법기관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4년 임기의 45명 의원으로 구성*) 자문위원회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군주의 정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함.
- * 영구헌법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 중 30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나, 최초 선거는 2021년까지 연기된 상황임. 2019년 말 타미 왕은 자문위원회의 45명 의원의 임기를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 하였음.

사회동향

견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안정 유지

- 2019년 1인당 GDP는 69,688달러로 역내 1위 및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경제 부국으로, 의료·교육·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 혜택이 풍부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임. 2019년 민주주의 지수(EIU 발표) 및 세계 언론자유 지수(Reporters Without Borders 발표) 순위는 각각 165개국 중 128위, 180개국 중 128위로 전 세계 기준으로는 열위하나 역내 타 국가들 대비 자유가 보장되는 편*임.
- * 역내 타 국가 민주주의 지수 순위: 사우디아라비아(159위), UAE(145위), 바레인(149위), 이집트(137위)
역내 타 국가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 사우디아라비아(172위), UAE(133위), 바레인(167위), 이집트(163위)

국제관계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와는 단교 상태 지속, 이란·터키와는 교류 확대

- 2017년 6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와 외교적·경제적으로 단절된 이후 현재까지 단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교국들의 육상, 영해, 영공을 통한 통행이 불가한 상황임. 단교 사태의 반대급부로 터키 및 이란과의 교류는 확대되고 있음.
- 2017년 5월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가 타미姆 왕이 군사학교 졸업식 에서 이란에 대해 우호적인 연설을 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 단교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카타르의 이란 및 무슬림 형제단과의 우호관계 유지 등이 단교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QNA는 국왕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해커에 의해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교 사태는 이후에도 지속됨.
- 이란과는 South Pars 해상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어 강력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란과의 우호관계가 요구되는 상황임. 동 가스전의 추정 매장량은 천연가스 51조 m³로 세계 최대 규모임.
- 한쪽이 천연가스를 많이 추출하면 그만큼 상대 국가가 추출할 수 있는 천연가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국간 생산량 조율 등의 협의가 필요함.
- 아울러 카타르에 소재하며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알자지라가 중동 지역 왕정들을 비판하고, '아랍의 봄' 시위에서 시민 측을 지지하며,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등의 보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군사력은 약한 편으로 미국·터키 앞 군사적 의존도가 높음

- 카타르는 미국의 핵심 중동 우방국 중 하나로, 미국의 중동 내 최대 군사기지이자 미군 11,000명이 주둔하는 '알 우데이드(Al Udeid)' 공군기지가 있음. 한편, 터키군은 카타르 내에 약 3천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19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지원잔액 250.8억 달러(단기 5.0억 달러, 중장기 245.8억 달러) 중 57.2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이는 전체 지원잔액의 0.2% 수준으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0.1월)	3등급(2019.1월)
Moody's	Aa3(2018.7월)	Aa3(2017.7월)
Fitch	AA-(2020.2월)	AA-(2019.5월)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투자적격 등급 유지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의 높은 1인당 GDP 등 우수한 경제력 및 이를 지탱해주는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등을 강점으로, 높은 외채비중은 신용등급의 하방요인으로 언급하였으나 모두 종전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카타르 경제는 2019년 LNG 가격 하락 및 2020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단기적인 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 및 2024년 LNG 증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망은 양호한 편임.
-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최근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LNG 판매에 따른 풍부한 외화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양호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외화자산 유동화 대신 외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한 결과 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대규모 국부펀드, LNG 판매에 따른 풍부한 외화 유입, 안정적인 고정환율제도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카타르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을 비롯한 단교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 자국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